



(사) 재일본조선작가협회 이사들, 왼쪽 오른쪽으로부터 회장 엄정자, 부회장 김화숙, 부회장 박은희, 마켓팅 사무총장 류춘옥, 홍보국장 호림, 비서실장 김철 등

## (사)재일본조선족 작가협회

# 개요

「재일본조선족작가협회」는 2019년 11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창립되었고 11월 24일 도쿄 아키하바라(秋葉原)에서 성립식을 가졌으며 2019년 12월 20일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사)재일본조선족작가협회는 사단법인이 되면서 대표 겸 회장으로 엄정자, 부회장으로 김화숙, 박은희, 사무총장으로 류춘옥, 홍보국장으로 호림, 비서실장으로 김철을 위임하였으며 삼화화성주식회사 대표이고 옥룡玉龍그룹 회장인 김충룡을 감사監事로, 김영건 시인, 리상학 시인, 한영남 시인을 고문으로 초빙하였다.

(사)재일본조선족작가협회는 2019년 1월 김화숙 시인이 『도라지』 잡지사 리상학 주필과 특집을 계획하면서 첫 스타트를 떼었고 전일본중국조선족연합회 성립에 힘입어 11월 11일 이사회에서 통과되면서 창립되었다.



(사) 재일본조선족작가협회 현판식에서

(사)재일본조선족작가협회 성립을 축하하여 연변작가협회 부주석이며 『문화시대』 주필인 김영건, 『송화강』 잡지사 주필 리호원, 『도라지』 잡지사 주필 리상학, 『장백산』 잡지사 주필 안미영, 『연변문학』 주필 김인덕, 흑룡강신문사 사장 한광천, 료녕신문사 총편집 오희성, 길림신문사 부총편집 한정일, 흑룡강성조선족작가협회 회장 리홍규, 재한조선족문학창작위원회 회장 리동렬, 전일본중국조선족연합회 회장 허영수가 축전을 보내 격려하였다.



재일본조선족작가협회성립

재일본조선족작가협회 창립 기념사진

(사)재일본조선족작가협회는 삼화화성주식회사, 옥룡玉龍그룹의 후원으로 협회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10월 26일 사무실에 현판을 올렸다. 1년 사이 『도라지』, 『문화시대』 등 국내 잡지에 특집을 냈고 한국 『작가와 문학』, 『이미저리』(한국문인협회), 『동포문학』, 미국의 『해외문학』에 특집을 냈다. 그 외에도 소속작가들이 국내와 해외 각 문학지에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도쿄에서 청년작가좌담회를 열어 청년작가들의 문학창작을 격려했으며 구체적인 창작지도를 하고 작품을 동북아신문 등 매체와 문학지에 발표함으로써 미래 작가군의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사)재일본조선족작가협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일본조선족들의 삶을 반영하는 좋은 작품들을 발표하며 신입작가 양성과 회원 영입에 힘쓰며 재일본조선족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도쿄 청년작가좌담회 기념사진

